

表具의 科學

안 희 균

김 기 섭

目 次

- 第一章 研究의 概要
- 第二章 表具奇術의 記錄
- 第三章 表材料와 技術에 관한 研究
- 第四章 두루마리作品의 保存 및 修理에 관한 研究

◇ 本稿는 1974년부터 1976년까지 3個年에 걸쳐 日本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에서 共同으로 研究 發表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表具研究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紙面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재로 게재하고자 한다.

2. 材 料

[종이]

表具의 工程中에서 各種 손으로 만들어진 日本紙가 많이 쓰여진다.

특히 文化財의 修理에는 各種 日本紙 가운데 品質의 安定성이 높은 것 즉 純粹한 纖維로만 抄造되고 木灰煮 등으로 傳統的인 手法에 의하여 處理된 것을 求하게 되지만 藥品處理로 이루어지는 경우 纖維自體가 損傷을 받지않고 있고 종이 가운데 藥品이 殘留하지 않은 것을 吟味하여 使用할 必要가 있다.

1) 薄美濃紙

單位 : 크기 2尺×3尺(60cm×90.9cm)

產地 : 岐阜縣美濃市, 京都府綾部市 其他. 얇은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거의 絶配接에만 使用된다.

美栖나 典具帖에 비하여 약간 뽀뽀하다.

2) 典具帖紙

單位 : 크기 1尺 7寸 4方(51.5cm 4方)

產地 : 高知縣吾川郡伊野町

楮紙가운데 가장얇은 종이의 하나로 他 종이에 비하여 縱과 橫의 強度差가 적다.

風帶裂의 配接이나 直折등 될 수 있는대로 얇고 강한 것이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3) 美栖紙

單位 : 크기 8寸×7寸(24cm×51.5cm) 또는 1尺 5分×2尺 3寸(31.8cm×68.7cm)

產地 : 奈良縣吉野郡

얇은 것으로부터 두꺼운 것에 이르는 各種이 있다. 두꺼운 편의 楮紙로 抄造直後에 마른板子에 발라 乾燥시켜 壓搾工程을 省略하기 때문에 柔軟하다. 또 胡粉이 混入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增配接에 쓰이기도 한다.

4) 宇陀紙

單位 : 크기 1尺 5分×1尺 5寸(31.8cm×45.5cm)

產地 : 奈良縣吉野郡

두께가 各種 있으며 表面이 매끄러우며 紙質이 좋은 楮紙이다. 抄造할 때 白土가 混入되어 있다. 主로 總配接에 쓰이는데 大型 表具의 경우 中配接에 쓰여지기도 한다.

5) 雁皮薄樣

單位 : 크기 1尺 6寸 3分×2尺 1寸 8分(51cm×66cm)

產地 : 高知縣吾川郡伊野町

紗漉에 의한 얇은 雁皮紙.楮紙보다 毛羽가 적고 前袋의 覆輪등에 쓰인다.

6) 美濃紙

單位 : 크기 9寸3分×1尺 3寸 3分(28.2cm×40.3cm)

또는 2尺×3尺(60cm×90.9cm)

產地 : 岐阜縣濃紙

中 정도의 두께 楮紙로서 軸袋, 八雙袋등에 쓰인다.

7) 石州半紙

單位 : 크기 8寸3分×1尺1寸6分(25.1cm×35.2cm)

또는 2尺×3尺(60cm×90.9cm)

產地 : 島根縣郡賀郡三隅町

中 정도의 두께 楮紙, 軸袋, 八雙袋, 張代 등에 쓰인다.

美濃紙보다 약간 부드럽다.

8) 레이온 페이퍼

合成纖維紙의 종이·敷紙나 畫面의 假養性등, 工程途中에 有效하게 쓰여지지만 어떤 경우도 臨時로 쓰여지는 것이고 配接 그 自體에는 絶대로 使用되지 않는다. 材質이 均一하고 두께가 適當하기 때문에 從來는 薄美濃紙가 쓰여졌지만 레이온 페이퍼는 싸고 톨로 市販되고 있어 任意의 크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近來 레이온 페이퍼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補修用 종지와 絹]

9) 補修用紙

紙本의 補修에는 本紙와 同質의 종지가 使用되는데 本紙의 種類는 楮紙 뿐만 아니라 三椏나 雁皮紙, 中國紙등도 必要하다. 現實的으로는 本紙를 使用하는 것은 어렵지만 될 수 있는대로 本紙와 同質의 종지를 선택하여 補修前後에 染色 또는 補彩에 의하여 本紙의 色에 맞게 한다.

10) 補修用 絹

絹本의 補修에는 從來는 古畫의 絹을 斷片이 使用되었지만 現在에는 그와같은 古畫를 入手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옛 畫絹의 密度나 실의 두께등을 模倣하여 새로운 畫絹을 짜서 補修用에 使用한다. 補修紙나 絹의 強度등이 옛것과 비슷하게 하여 使用한다.

[接着劑]

11) 새로운 풀(沈糊)

純粹한 小麥粉을 沈生麩 또는 吟生麩이라고 한다. 純白의 粉末 또는 덩어리이다. 이 生麩粉末 10g에 물 50~60g의 비율로 섞어 끓인 것이 새로운 풀이다. 이것을 물로 식혀 굳게하여 使用한다. 必要에 따라서 適當한 농도로 게어서 使用한다.

부패 하기前에 쓰지 않으면 變되기 때문에 必要量만 끓여서 만든다. 冬期에는 오래 使用할 수 있다.

12) 古糊(寒糊)

寒中(1月 5日경부터 2月初旬에 걸쳐서)에 새 풀을 大量으로 만들어 단지에 넣고 뚜껑을 닫아 바람이 잘 통하는 冷暗所(例 木造家屋의 마루밑등)에 保管한다.

初期에는 多量의 곰팡이가 풀의 表面이나 뚜껑의 안쪽에 發生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들은 새까맣게 變하고 차차 곰팡이가 發生하기 어렵게 되며 接着力이 弱한 풀을 얻게 된다. 이것을 古糊라고 하며 增配接, 中配接, 總配接에는 이 古糊를 물에 풀어 물풀을 만들어 使用한다.

또 이어맞추기, 귀접기의 工程등에 새 풀과 섞어서 쓰는 工房도 있다.

13) 아교

三千本아교(소나 말의 가죽이나 뼈로 만든다고 한다)나 鹿아교를 水中에 하룻밤 담궜다가 부풀게 하여 湯에 풀어놓이고 이것을 適宜 물을 타 얹게 하여 繪具 등에 使用한다. 아교물에 명반을 加하여 반수를 繪畫의 번짐을 막는데 쓰는데도 있지만 명반의 酸性이 本紙를 劣化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現在에는 使用하지 않는다.

14) 布海苔

布海科의 海藻로부터 만들어 진다. 板狀의 布海苔를 잘라서 물이 들어있는 容器中에 하룻밤 放置하고 불려서 찌서 녹이고 천(布)으로 不溶部分을 걸러서 布海苔液을 만든다.

아교물에 섞어서 繪具가 손상되거나 배어나움을 防止하기도 하며 또 表具에 使用하는 裂이나 布가 흐물흐물하는 경우 빨래板과 같은 板에 바르고 주름펴기를 하는데 쓰기도 한다. 紙本의 缺損部(구멍등)에 별도의 종이로 補修할 때 풀에 布海苔를 섞어서 使用하는 工房도 있다.

[裂, 布]

15) 天地등 表具用으로 쓰는 裂

現在 使用되고 있는 裂의 種類는 金欄, 紗金, 縫紗, 印金, 緞子, 綾, 綿, 紗, 羅, 平絹, 絁등이다. 각각 天, 地, 一文字, 중선, 풍대등에 선택되어 使用된다. 絁나 平絹등의 無地의 것도 天地에 使用되는 경우도 있다.

16) 上卷絹(裏卷絹)

上卷絹의 外에 軸의 붙임이나 八雙의 小口등에 쓰이는 것은 平織의 얇은 絹布로 通常 얇은靑色, 얇은茶色の 것이다. 產地가 日本의 福島縣川楮^侯이기 때문에 福島絹, 川●絹이라 불리우며 때로는 福島라고 불리운다.

[其他]

17) 軸首(軸先)

紫檀, 黑檀, 鐵刀木, 黑柿, 竹, 뽕나무등 외에도 水晶, 陶磁, 銅 혹은 象牙나 鹿角등의 諸 材料가 使用된다. 木軸으로는 칠을 칠한 蒔繪나 螺鈿을 施工한 것이다.

象牙의 切軸(單純한 圓柱形)을 佛畫로부터 文人畫에 이르기까지 널리 使用되고 있다.

銅板을 구부려 만든 金軸등의 表面에 蓮花唐草나 輪玉을 線刻한다든지 透彫한 것을 佛畫에 利用된다.

文人畫에는 中國의 表具를 模倣하여 象牙나 紫檀의 長軸(軸直徑보다 길게 튀어나온 軸首)이나 變軸(複雜한 形을 내놓은 軸首)를 使用하고 있는곳도 있다.

18) 軸木, 八雙

軸木은 中軸이라고도 불리우며 杉의 白太를 깎아서 만든 丸棒이다. 兩端에 붙인 軸首를 포함하고 軸이라 불리우는 두루마리로 할 때에는 감는 芯으로써 펴서 壁에 걸을 때에는 平面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大形의 表具로 굵은軸이 必要할 때에는 材의 휘어짐과 變形을 적게 하게 하기 위하여 몇 개의 材를 이어만든 假軸을 만듦. 이 경우 軸의 內部에 空洞

이 생기게끔 붙여서 軸木의 重量을 輕減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經卷用의 簡略한 軸木으로 中央을 相缺하게 하고 作品의 크기에 따라 伸縮性은 加한다든지 하여 使用하게끔 研究해 놓은것도 있다.

八雙은 掛軸의 上緣에 붙이는 작은구멍 半圓形의 棒으로서 같은杉의 白太를 깎아 만든다.

19) 鑲金具

掛緒를 매어 달게하기 위하여 머리를 環狀으로 만든못. 八雙에 박는다. 木折形이나 菱形의 座金을 同伴한다. 박는 環은 足摺라고 불리운다. 발이角形으로서 끝이 못과 같이 뾰족하다. 割足を 속에넣는 발을 兩側을 열어서 갈끔하게끔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0) 끈

掛緒와 卷緒는 同質의 끈을 使用한다. 白, 黑, 緣, 黃등의 絹의 色絲를 섞어서 끈 平打끈 所絹啄木打의 끈이 많이 使用된다. 其他 白茶, 茶, 薄靑, 紫色같은 無地의 使用되는 수도 있다. 幅은 大體로 二分乃至五分(0.6cm×1.5cm)

[保存用代厲品]

21) 太卷添軸(太卷, 太卷芯, 太卷軸)

掛軸, 卷子(족자)는 軸을 두루말아서 箱子에 넣어 保存하는데 편다든가 다시 두루말든가 하는데 꾸김이나 겹쳐지는 것을 적게 하기 위하여 軸을 굵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最近 保存上의 手段으로 本來의 軸위에 桐材製의 卷軸을 뒤집어쓰워 그것에 족자를 말아서 保存하고 있다. 이와같은 것을 太卷軸이라 한다.

22) 保存箱

掛軸이나 족자를 保存하기 위하여 木製의 保存箱子가 必要하다.